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어린이·청소년)분야 시범공연 지원심의 총평

■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어린이·청소년) 분야 시범공연 지원 심의평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어린이·청소년)분야 시범공연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6. 3.24(목) 14:00, 대학로예술극장 스튜디오 하늘
 - 2차 심의 : 2016. 4.12(화) 10:30, 예술가의집 세미나실2

공연예술창작산실에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 연극분야가 신설되어 무척 반가운 마음으로 심의에 임하게 되었다.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연극(어린이·청소년) 분야에는 총 47개 단체가 응모했다. 심의기준은 작품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30%), 작품의 예술성(50%), 작품의 파급효과(20%)였다. 1차 심의에서 지원신청서와 희곡을 검토해 2차 프레젠테이션 심의대상을 선정했다. 2차 심의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작품별 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1, 2차 심의를 통해 총 6개 작품을 시범공연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의위원은 어린이·청소년 연극의 다양한 목표(예술, 교육, 상업, 오락 등) 중 창작산실의 목적에 부합하고, 어린이·청소년연극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예술 작품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창작 대본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를 진행했다.

1차 심의대상인 47편의 작품 가운데 기존 어린이·청소년극 전문가보다는 일반 성인 대상 연극 전문가들의 작품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 작품들 대부분이 거름망이 필요한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사전 정보와 배려와 연구가 부족했다. 이에 따른 접근방법과 극작법 그리고 단정적 대단원에 대해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 1차 심의에서 선정되지 못한 몇몇 작품들 가운데, 모든 연령이 관람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2차 심의 대상이 된 작품들은 구체적 공연계획과 현실적 제반 요소가 확실한 작품들이었음을 밝히는 바다.

2차 심의에는 5, 6세의 아이부터 가족 일반,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작품이 올랐다. 드라마가 강한 작품이 있었고, 국악, 택견, 다중언어, 그림까지 다양한 소재를 지닌 작품이 있었다.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오브제나 매체를 이용한 재미있는 공연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각 작품마다 독자적인 개성이 있고, 장르가 다양해서 심의하는 과정도 즐거웠다.

선정된 6개 작품을 포함하여 지원작 전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선 어린이·청소년 대상 공연의 목적이 교육에도 있겠지만, 이만을 강조하다보면 연극적 요소, 재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작품의 흥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무대 표현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퍼포먼스를 강조하다보면 드라마투르기가 너무 약해진다거나, 영상이나 그림을 표현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면 지루한 교육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표현법, 장치를 찾기를 바란다.

향후 어린이·청소년 연극 관련 워크숍, 전문 작가나 연출가 초청 강좌 등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계층의 관심 속에서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연극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연극(어린이·청소년)분야 심의위원 일동

